

SBS '언니는 살아있다' 찐찐한 악역 **박광현**

긴 터널 같았던 30대... 아내와 딸의 존재가 내 연기를 바꿨다

연기자 박광현(40)은 올해 데뷔 20년을 맞았다. 1997년 SBS 토크쇼 선발대회를 통해 데뷔, 화려하진 않지만 잔잔한 20년의 시간을 보낸 그는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다보니” 오늘을 맞았다고 한다. 그렇다고 굴곡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30대는 긴 터널”이었다고 돌아킨다. 초조한 날들의 연속이었지만 이제는 웃으며 되돌아볼 수 있다.

박광현은 “20년이라는 시간의 흐름만큼 얼굴도 변했다. 서른 후반부터 조금씩 보이던 흰머리가 많아졌다”며 웃는다. 이어 “다른 일을 해본 적도 있는데 어렵더라.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웃음). 저는 제 몸으로 돈을 버는 직업을 가지지 않았다”라고 말을 잇는다. 그리고는 곧장 “연기가 쉽다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대본 암기가 가장 힘들다. 하하! 연기라는 정해진 일을 하지만 작품과 캐릭터가 매번 다르다. 또 연출자와 작가 성향에 따라 표현 방법도 달리 해야해 연기는 반복적이지만 똑같은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현재 출연 중인 SBS 토요드라마 ‘언니는 살아있다’는 박광현의 연기 인생에 가장 큰 변화를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저를 보고 ‘갑자기 망가졌다’고 한다. 저는 나이를 먹고 있는데 사람들은 20대의 풋풋하고 미소년 같은 모습을 기억하는 것 같다. 이미지를 바꾸는 것에 연연하지 않지만 한번 각인된 느낌은 시간이 많이 흘러도 오래 남더라.”

평소 집착하지 않고 의연하지만, 30대에는 이성격으로도 버티기 힘들었다고 그는 말했다. 2005년 MBC 드라마 ‘단팔뿔’을 마치고 바로 군 입대 한 박광현은 2007년 제대 후 1년 반 동안 “놀았다”. 연기를 하고 싶은데 자신이 설 수 있는 무대가 마땅치 않았기 때문이었다.

“환장하겠더라. 연기가 하고 싶어 죽겠는데, 부귀할 날을 기다리며 열의에 불타 군대에서 살도 빼고 몸도 만들었는데 말이다. 그때가 한창 한류 붐이어서 일본에서의 인기 여부가 캐스팅의 큰 요건이었다. 2년의 시간 동안 현장 시스템이 달라져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작은 역할이라도 하겠다는 마음”으로 30대를 보냈다. 분명 출연하고 있는데 주변으로부터 왜 TV에 나오지 않는냐’라는 질문을 수 없이 받기도 했다. 연기자로서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나

요즘 가족을 굶기지 말자는 생각으로 연기하죠
날 비난하는건 괜찮지만, 가족 인신공격은 제발...



안겨준 작품이다. 데뷔하고 처음으로 “대놓고 나쁜 놈 역할”을 맡아 일부 시청자들에게 ‘욕’을 먹고 있다. 관련 인터넷 기사 댓글에도 ‘악플’이 수두룩하다. 물론 박광현이 아닌 캐릭터를 향한 비난과 지적이다.

그는 “크지 않은 역할이지만 시청자에게 제 연기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비난도 드라마를 봐야 할 수 있지 않나. 그만큼 보시는 분들이 많다는 반응이라고 생각해 행복하게 촬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이전과 다른 ‘연기자 박광현’으로 시청자 앞에 선 사실이 기분 좋다는 그는 “이 정도면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고 할 수 있지 않나. 하하! 연기자로서 다른 이미지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알린 기회였던 것 같다”고 했다.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가족을 향한 인신공격은 자제했으면 한다는 것이다. 그는 “저는 내성이 생겨서 아무렇지도 않는데 가족들에 대해서는 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자신에 대한 비난 정도는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것이다.

는 듯한 현실은 그를 힘들게 했다. 그 무렵, “연기 잘하는 놈이 잘 하는 게 아니라 체력 좋은 놈이 잘 하는 것”이라는 이순재의 말에 힘을 얻었다. 이 한 마디에 마음이 편해지고 해방되는 느낌도 받았다. 2014년 결혼, 2016년에 딸을 얻으면서 여유로움은 더욱 커지게 됐다. “아이가 생기면서 심적인 안정감이 커졌다. 아이가 주는 에너지가 강해 저도 덩달아 달라졌다. 가족이라는 존재가 연기하는 데 원동력의 하나”라고 했다.

아내의 사진을 휴대폰 배경화면으로 해본 적 없지만 지금 그의 휴대폰화를 켜면 딸의 얼굴이 가장 먼저 보인다. 생활의 모든 것이 아이 중심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아내에게 늘 미안한 마음이라는 박광현은 “활동을 하느라(집안일을) 많이 도와줄 수 없지만 ‘3년 만 고생하자’며 애기를 다독인다”며 애정을 드러냈다. “가족을 굶기지 말자라는 생각으로 연기를 하기도 한다. 하하! 그만큼 가장의 무게를 느끼고 있다. 지금은 힘들어도 조금 더 유쾌한 삶을 위해 뛰고 있다. 힘들기도 하지만 재밌고, 즐겁게 살자는 생각으로 임하고 있다.”

백솔 기자 bsm@donga.com



화려하지는 않지만 잔잔하게 20년의 연기 생활을 한 박광현은 SBS 토요드라마 ‘언니는 살아있다’를 통해 연기자로서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사진제공 | FNC엔터테인먼트

연예뉴스 HOT 5

‘이태곤 폭행’ 이모씨 집행유예 선고

배우 이태곤을 폭행한 3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최환영 판사는 20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33)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이 씨는 1월 경기 용인의 한 술집 앞에서 이태곤을 주먹과 발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당시 이태곤에게 반말로 악수를 요청했고 이태곤이 반말을 문제 삼자 폭행했다. 이태곤은 당시 코뼈 골절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폭행사건 전력이 3차례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제대로 사과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씨와 함께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친구 신모 씨(33)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빅스 레오, 복통으로 활동 일시 중단

그들 빅스 레오가 복통으로 활동을 일시 중단한다. 소속사 쥘리퍼쉬엔터테인먼트는 20일 팬카페 등을 통해 “지난주 레오는 본인의 의지에 따라 치료와 함께 빅스LR(빅스 2인조 유닛)의 새 앨범 활동 마지막 음악방송 일정을 마쳤으나, 복통이 호전되지 않아 입원 치료를 받게 됐다. 당사는 레오 군의 건강이 최우선인 만큼 대장 출혈로 인한 복통에 대한 집중 치료와 컨디션 회복에만 전념하기로 했다. 이에 레오는 당분간 예정된 모든 일정에 참석하지 않고 회복에만 집중함을 양해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레오는 일본에서 진행되는 빅스의 현지 이벤트, 일본 앨범 프로모션 등에 불참하게 됐다. 21일 예정했던 빅스 LR의 팬 사인회도 10월 중으로 연기했다.

‘대마초 혐의’ 연습생 검찰 항소 기각

빅뱅 탐과 함께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연습생 A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과 추징금 87만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처벌받은 사례가 없고 혐의를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한 점, 마약류 일부는 수사기관에 압수돼 더 유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볼 때 1심이 선고한 형량이 부당할 정도로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당초 A씨도 1심 판결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재판 과정에서 취하했다.

고현정, 드라마 ‘리턴’ 차기작 검토

배우 고현정이 SBS 새 드라마 ‘리턴’을 차기작으로 검토 중이다. 20일 소속사 아이오케이 측은 20일 “고현정이 ‘리턴’ 출연 제안을 받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리턴’은 살인사건의 진실을 추적하는 드라마로 고현정은 변호사이자 TV 법정쇼 ‘리턴’의 진행자 역할을 제안 받았다. 제작진은 극중 캐릭터와 고현정의 카리스마 있는 모습이 잘 맞아떨어져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현정이 ‘리턴’에 출연하면 1년 만의 드라마 출연이다. 지난해 방송한 케이블 채널 tvN ‘디어 마이 프렌즈’에 출연했다. 고현정은 최근 영화 ‘호랑이보다 무서운 겨울 손님’ 촬영을 마치고 개봉을 기다리고 있다. 자신이 론칭한 한 의류 브랜드의 신제품을 출시하며 사업가로도 활동중이다.

앤디·이민우 ‘삼시세끼’ 게스트 출연

그들 신화 멤버 앤디와 이민우가 케이블채널 tvN 예능프로그램 ‘삼시세끼-바다목장 편’(삼시세끼) 게스트로 출연한다. 두 사람은 18일부터 1박2일 동안 촬영을 마쳤다. 앤디와 이민우의 출연은 예력의 초대로 이루어졌다. 앞서 예력은 지난해 ‘삼시세끼-어촌 편3’ 제작발표회에서 “요리를 좋아하고 꼼꼼한 성격을 가진 앤디를 게스트로 부르려고 싶다”고 밝혀 화제를 모았다. ‘삼시세끼’는 이서진, 예리, 윤균상이 전남 고흥군 득량도에서 목장을 운영하며 하루 세끼를 해결하는 게 콘셉트다. 세 사람의 호흡과 ‘에 세프’라는 별명을 얻은 예리가 한상 차려내는 밥상을 들여다보는 재미가 있다. 제작진은 “이들이 어떤 활약을 했는지 방송을 통해 확인해 달라”고 밝혔다.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